

제사 설화의 전승의식과 가족공동체의 문화적 의미

류 명 옥*

- I. 서론
- II. 제사 설화의 전승 양상
- III. 전승의식 변화와 가족공동체의 문화적 의미
- IV. 결론

국문초록

제사 설화는 조상에 대한 의례인 제사를 지내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다. 구비 전승되는 제사 설화의 유형으로 ‘정성이 부족해서 혼령이 해 끼치는 이야기’가 있다. 구비 설화에 전승되는 제사 설화는 제사의 격식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제사를 지내는 정성 또는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제사 설화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정성의 의미를 살펴보면 주로 제사 음식을 깨끗하게 준비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사를 지낼 때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사를 정성껏 준비해야 한다는 교훈적인 주제의 이면에는 제사 음식을 정성껏

*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강사 / eden2020@hanmail.net

준비해야 하는 대상이 며느리인 여성으로 한정되어 나타난다.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여성에게 제사라는 의례는 과도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게 하여, 정성이라는 의미가 경직될 수밖에 없다. 제사 설화에서 정성은 여성들에게 노동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하지만 제사 설화는 현재에도 여전히 구비 전승되고 있으며 변하는 시대에 따라 다르게 전승되는 설화들도 있다. 금기시되어 온 제사 음식을 올리는 설화나 제사 지내는 시간을 현대에 맞게 바꾸는 설화를 통해서 제사의 의미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현재 전승되는 제사 설화를 보면 여성이 제사의 불필요함을 남편에게 토로하면서 과거에는 고부 사이에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 부부의 갈등으로 관점이 변화되었다.

그리고 제사 설화는 세대 간의 갈등으로 변화되어 나타난다. 설화에서 바쁜 생활로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제사 날짜를 까먹는 남성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남성들은 점점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남성들의 빈자리를 여성들이 채우고 있다. 남성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제사에 여성이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를 주도적으로 지낸다. 장자 또는 남성 중심적이었던 제사의 세대 간의 연대는 약화 되고 여성들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세대 갈등의 관점으로 변화되면서 남성들은 관심이 없어지고, 여성들은 이전의 책임감으로 제사를 지내게 된다.

이처럼 세대 간의 유대관계가 돈독하지 못한 지금 시대에 제사 설화는 더 이상 전승되지 않을 것 같지만 여전히 제사 설화는 변하는 시대에 맞추어 변화되고 있다. 부계중심의 제사 문화가 현재에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제사 설화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현대 가족의 중심점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가늠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 주제어

가족공동체, 구비설화, 세대 갈등, 여성, 제사, 조상, 정성

I. 서론

제사 설화는 조상에 대한 의례인 제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이다. 제삿날에 조상의 혼령이 실제 다녀간다는 설화와 자손이 아닌 사람이 제사를 지내주고 복을 받았다는 설화 등 여러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다. 그리고 구비 설화에는 조상제사의 제례 절차와 제물의 진설 방식 등과 같은 외형적인 이야기는 거의 전승되지 않고 있으며, 제사를 지내는 주재자들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전승되고 있다. 특히 ‘제사 차린 정성이 부족해서 혼령이 해를 끼치는 유형’이 제사 설화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제사에 대한 정성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제사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은 제사를 지내야 하는 이유와 제사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도 한다. 이처럼 제사에 대한 인식이 약화 되어가면서 제사 설화를 구연 현장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지만 여전히 설화 구연 현장에서는 제사 설화가 전승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사 설화가 계속해서 전승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제사 설화를 보면 여전히 제사 차린 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다. 현재 전승되는 제사 설화의 ‘정성’이라는 것이 과거에 전승되었던 제사 설화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사 차린 정성이 부족한 설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유형 설화를 살펴보는 이유는 제사 설화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사를 준비하는 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제사에 임하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제사 설화를 구연하는 구연자가 기성세대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주로 제사를 준비하는 주재자의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다. 이들이 제사 설화를 구연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 제사를 지내는데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가를 구연하는 것과 함께 제사는 세대가 함께 모여 행하는 의례이기 때문에

제사에 관심이 없는 젊은 세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통해 젊은 세대들의 생각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제사 설화의 세대별 인식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대별 인식의 차이는 지금 시대에 세대 갈등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갈등의 폭을 좁힐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사 설화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사 설화가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와 조상에 대한 섬김의 당위성으로 인해 연구자들에게 문제의식의 여지를 두지 않았던 문화적 배경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당위성이 약화 되어 가는 지금 시대에 제사 설화를 살펴보는 것은 제사 설화 또는 제사 문화에 대한 향후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앞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사 설화에 대한 연구로는 설화를 통해 제사 문화를 탐색하려는 연구가 있다.¹⁾ 설화의 전승 현장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제사에 대한 인식과 제사에 대한 관념이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제사 연구에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본격적으로 제사 설화의 구조를 분석하여 의미를 찾는 연구로는 <부정한 제사음식> 설화 유형에 한정하여 변이양상과 의미를 밝힌 것으로 구체적으로 제사 설화의 유형론적 논의가 이루어졌다.²⁾ 이후 제사 설화에 대한 연구는 설화 전승자에 주목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³⁾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제사 설화’를 읽고 감상문을 적은 것을 중심으로 지금 시대의 청자들의 인식에 주목하여 제사 설화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시대의 젊은 세대들이 제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사 설화는 여전히 전승되고 있으며, 제사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 제사에 대한 인식을 살펴

1) 임재해, 「설화문화학적 관점에서 본 제사문화와 제례의 민중적 인식」, 『민속연구』 제9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9.

2) 정재민, 「<부정한 제사음식> 설화의 변이와 그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10집, 한국구비문화회, 2002.

3) 이인경, 「‘제사설화’에 대한 신세대의 해석과 구비전승의 향방」, 『국문학연구』 제21호, 국문학회, 2010.

본다는 것은 기성세대와의 극과 극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는 것에 그칠 뿐이다. 결국 제사 설화의 미래 전망은 밝지 않을 것이며 설화의 전승도 단절될 위기를 겪게 되는 결말이 나타날 것이다.

물론 제사 설화가 이러한 현상을 피해갈 수는 없는 일이지만 세대 간의 인식 차이와 갈등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제사 문화에 익숙하면서 시대의 변화를 겪어온 설화 전승자에 주목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들은 설화 전승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함께 경험한 설화 전승자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설화 구연자들은 제사 설화를 통해 지금 시대에 제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젊은 세대들의 불만을 직접 듣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과 소통되지 않는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구연되고 있는 설화 구연자들을 통해서 제사 설화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금 전승되는 제사 설화에서도 정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제사의 격식과 절차가 아닌 정성이라는 것을 몇 세대가 지나도록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정성이라는 용어는 보편적인 의미에서 쓰일 수 있지만 정성을 실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정성을 들이는 행위 역시 변하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성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전승되는 제사 설화들을 보면 세대별 연결고리가 약화 되어 가면서 제사 설화에 딸 또는 여성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들이 바빠서 제사에 참여하지 못해 며느리와 딸만 제사를 지내는 설화를 보면, 여전히 할아버지-아버지-손자의 세대별 연결고리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제사를 지내면서 생겨나게 되는 세대 간의 갈등과 그 갈등의 간극이 여성을 통해 채워지는 모습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사람들에게 제사 설화를 살펴보는 연구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뿌리인 조상 또는 부모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모습은 정체성 확립에도 중요한 의미가 된다. 하지만 기억과 추모의 의미가 희석화되고 규범화와 강제성의 의미만 남겨진 제사 문화가 우리 시대에 세대 간의 갈등 요소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는 세대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뚜렷한 해결 방안을 내어놓지 못하는 지금의 실정에서 세대 갈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제사 설화를 통해 갈등의 해결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세대 간의 문제가 무엇이며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나름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사 정성 부족한 설화 유형의 전승 양상을 살펴보고 과거와 현재의 전승 의식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이러한 변화양상이 한국의 가족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제사 설화의 전승 양상

제사 설화는 주로 제사를 지내는 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다. 제사를 지내는 형식과 제물을 차리는 방법 등을 이야기하는 설화는 찾아보기 힘들다. 제사 설화의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 개인적이고 합리주의 세계관을 지향하는 신세대들에게 조상신에 대한 제사라든가 타인에게 베푼 선행에 대한 환상적인 보상과 같은 설화 내용이 깊은 공감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이인경, 「祭祀說話」에 대한 신세대의 해석과 구비전승의 向方, 『국문학연구』 제21호, 국문학회, 2010, 186쪽.)

제사 설화의 전승의식과 가족공동체의 문화적 의미(류명옥)

번호	설화 제목	채록 지역	제보자 성별	대계 번호
1	혼령들의 제사 음식 품평	경기 용인	여	1-9
2	무덤에서 자다 귀신이야기 들은 소금장수	충북 용산	여	3-4
3	혼령의 대화를 엿들은 소금장수	충남 대덕	남	4-2
4	소금장수 이야기(1/3)	충남 보령	여	4-4
5	제사 잘못 지내서 손자가 화로에 빠지다	충남 보령	남	4-4
6	혼령의 대화 엿들은 소금장수	충남 부여	여	4-5
7	소금장수 이야기(1/3)	충남 부여	남	4-5
8	묘에서 잔 소금장수	충남 공주	여	4-6
9	머리카락이 튼 제사밥	전남 남원	여	5-1
10	제사음식의 머리카락	전북 옥구	남	5-4
11	등금장수와 쌍금피	대구시	여	7-13
12	제삿날 귀신들의 말을 엿들은 과객	경북 예천	여	7-17
13	귀신과 제사법	경남 밀양	남	8-8
14	조상 섬기는 일	경남 김해	남	8-9
15	제삿밥 받아먹으러 오는 간송선생 영혼	경남 의령	남	8-11
16	저승에서 먹는 제사 음식	경남 울주	여	8-13
17	제사는 정성껏 해야	제주시	남	9-2
18	메밥의 머리털은 뱀	제주시	남	9-2
19	여우잡은 이좌수(3)	제주 서귀포	남	9-3
20	이좌수의 현형방(1/2)	제주 남제주	남	9-3

위의 목록을 보면,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제사 차린 정성 부족하다고 해 끼쳐준 혼령’ 유형 설화 20편의 전승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유형 설화의 내용은 제사 음식에 돌과 머리카락이 들어 있어 음식을 차리는 데에 정성이 부족하다고 혼령이 화를 낸다. 이렇게 화가 난 혼령이 손자를 다치게 하여 제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이다. 대부분의 설화가 비슷한 내용으로 전승되고 있다. 위의 설화의 공통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부모(조상)의 혼령 제삿날이 되어 제사를 준비한다.
- ② 부모의 혼령 중에 한 사람만 제사 음식을 먹으러 간다.
- ③ 부모의 혼령은 제사 음식을 먹지 않고 돌아온다.
- ④ 제사 음식에 돌과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하며 화를 낸다.
- ⑤ 제사 음식에 정성을 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손주를 화로에 밀어 다치게 한다.
- ⑥ 소금장수가 이를 듣고 약을 가르쳐 주고 제사를 정성껏 지내라고 한다.
- ⑦ 다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제사를 지낸다.

제사 설화의 세부적인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위의 공통된 내용이 설화의 중심이 된다. 구비 전승되는 제사 설화의 공통된 이야기는 제사를 정성껏 지내는 않는 행동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제사 음식에 머리카락과 돌이 들어가서 혼령이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하여 제사 음식에 대한 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제사를 생각할 때 제사 의례의 격식과 절차에 대한 엄숙한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구비 설화에서 제사 설화는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와 예의 규범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으며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제사의 정성에 대해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다. 제사를 지낼 때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사 설화에서 말하는 정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구비 전승되는 제사 설화에서 제사의 절차와 진설 등을 이야기하지 않는 대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마음을 움직여 느낀다’는 뜻을 지닌 ‘응감(應感)’을 강조하고 있으며, 조상제사에서 조상이 제사 음식을 드시는 흠향이 전제되어야 후손들의 정성을 마음으로 느끼는 응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⁵⁾ 구비 설화에서 제사의 중요한 의미는 조상 혼령이 응감을 하도록 정성을 드리는 것을 제사의 절차

5) 김미영, 「설화를 통해 본 조상제사의 인식 체계」, 『한국계보연구』 4권, 한국계보연구회, 2013, 88쪽.

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응감의 전제는 흠향(歆饗)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며, 흠향은 조상이 제사 음식을 드시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만큼 제사 음식을 정성껏 차리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구비 설화에서 제사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도 조상의 응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응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화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사를 정성껏 준비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돈하여 제사에 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정성’이라는 것의 의미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음식을 잘 대접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정성을 들여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더욱 정성을 들여야 하는 대상이 있다.

시어머니가 인저 갔는데, 그냥 머느리가 언네를 업구서는 인저 요렇게 밥중은 됐는데, 열두시는 요렇게 됐는데, 지사가 언네 테리구 하니까는 지사가 늦으니까 아궁지에다 증얼증얼 하며 늦으니까 인저 증얼증얼 하며, 그냥 아궁지에다 불을 톱톱 발루 때구 그냥 밥을 안치구 그러더래. 그래서 급하니까, 발루다가 이 낭구 처넣구 저낭구 처넣구. 그래서 퍼다 놓는데 밥에는 바위가 들구, 국에는 구렁이가 들 었다구.⁶⁾

나락을 쪼이면은 덜 쪼이고 썩나락 그냥 안 있는 기 안 있다. 혹 그기 있으면 구신(鬼神)한테는 바우가 되고, 덩바우 삶아 놓은 거뵈이 안 되고. 그러마 멀끼딩이가(머리카락이) 나물에 되가이(들어가면) 구리 삶아(구렁이를 삶아) 논 거뵈이 안 되는 기라. 그러마 지사(祭祀) 음식 장만할 때는 안으로(女子가) 언젠나 수건을 딱 오두바 찌고, 깨끗이해 가지고 수건을 딱 오두바 찌고, 멀끼딩이 안 흘리도록 요래가 인자 정갈키 하라 카는 그 인자 그기 인자, 옛날부텀 전설에 나와 가 있거마는.⁷⁾

위의 설화 내용을 보면 제사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짖고 있다. 앞의 목록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의 제사 설화에서는

6) <혼령들의 제사 음식 품평>, 『한국구비문학대계(1-9)』, 한국학중앙연구원, 241쪽.

7) <귀신과 제사밥>, 『한국구비문학대계(8-8)』, 한국학중앙연구원, 393쪽.

제사 음식에 돌과 머리카락이 들어가서 혼령이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구연하고 있다. 조상의 혼령이 응감을 하지 못한 것을 문제로 삼고 있으며, 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집안의 며느리가 음식을 장만하고 준비한다. 제사 음식의 정성이 부족하다고 꾸짖는 것은 결국 음식을 준비하는 며느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여성인 며느리가 신경 써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에 돌과 머리카락이 들어간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 설화에서 ‘정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정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대상은 바로 여성인 며느리인 것이다.

앞서 살펴본 제사 설화 구연자의 성별을 보면 9편이 여성 구연자가 전승하는 설화이다. 이 유형 설화의 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많은 여성 구연자들이 제사 설화를 구연하고 있다. 여성 구연자들이 제사 설화를 구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설화를 구연하는 여성들의 나이가 시어머니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며느리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을 교훈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⁸⁾

하지만 제사를 준비하면서 여성들에게 음식을 장만하고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며느리에게 제사를 정성껏 지내라는 교훈의 의미로 설화를 구연할 수 있지만, 여성 구연자들이 제사의 격식이나 규범보다는 제사 음식을 차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여성들에게 중요하면서도 힘든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제사 설화의 편수가 많지는 않지만 설화가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8) 제사 설화를 구연하는 구연자들의 성별에 따라 남성구연자들은 ‘효심으로 정성껏’ 제사를 지내야 함을 후손들에게 포괄적으로 훈계하고자 설화를 구연하는 반면에, 여성 구연자들은 여성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는 ‘祭需를 정갈하게 마련해야 함’을 훈계하려고 설화를 구연하는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로 여성들이 제사 음식의 장만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이인경, 「설화전승자의 의식 변화와 ‘祭祀說話’의 미래」, 『어문론총』 제52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0, 73쪽 참조.)

것을 보아 제사 설화를 구연하는 여성들의 인식을 보면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책임감과 동시에 부담감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사 지낼라꼬 음식을 요래 채털라 카이까네 배가 마 똥 구브러 지디만은, 채리는데 배가 똥 구브러져가 마 어디 가뿌고 없더란다. 고게 툇 널찌디만은 어디로 구부러가뿌렀는둥 없디만. 그게 정신이 부실했다고.⁹⁾

소금장사가 산소 옆대기에서 자니깐 그러더랴. 그 갔다 와 가지고 그 얘기를 해드래요. 그러니께 정성스럽게 잘 차려두 그 들어가는 수가 있잖어. 정성스럽게 해도 그게 어떡하다 들어가는 거여.¹⁰⁾

위의 설화를 보면 여성들이 음식을 준비하면서 정성을 기울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토로하고 있다. 제사를 지내려고 배를 올려놓아도 갑자기 떨어져서 사라지는 것은 음식을 준비하는 여성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아무리 깨끗하고 정갈하게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돌이나 머리카락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면서 정성껏 준비하지만 여성들이 방비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제사 설화는 제사 음식을 장만하는 여성들에게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성들은 음식을 깨끗하고 정갈하게 준비하기 위해 그만큼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음식 장만에 정성을 들이기를 요구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큰 부담감이 되었다는 것도 설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아무리 깨끗하게 정성껏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그러한 무방비의 상황까지도 여성들에게 잘못을 책임 지우는 것이 여성들에게 제사라는 의례를 부담스럽게 여기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며느리인 여성들에게 제사 의례가 더욱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성을 들이지 않았을 때 조상의 혼령

9) <제사 잘못 지내 아이 잃은 집>,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7-21)』, 한국학중앙연구원.

10) <제사 잘 못 지내 벌 받은 후손>,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경기도 평택)』, 한국학중앙연구원.

이 내리는 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음식에 돌과 머리카락이 들어 있어서 음식을 먹지 않은 조상 혼령은 손자를 뜨거운 국이나 화로에 손을 넣어 화상을 입게 한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지만 설화에서는 조상 혼령이 화가 나서 일부러 한 행동이라고 한다. 손자를 다치게 하는 행위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상제사에 응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식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조상 혼령이 응감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이처럼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조상 혼령이 응감을 잘 하여 후손들에게 복을 내리는 설화들도 전승되고 있지만, 이 유형의 설화에서 조상 혼령들은 모두 후손에게 벌을 내린다. 손자가 이유 없이 다치는 것이 제사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지 않아서 제대로 응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된다. 사실 손자가 이유 없이 다치게 되는 것이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지만 제사 설화에서는 알 수 없는 현상을 조상 혼령의 응감으로 설명하여 여성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처럼 여성들이 제사 음식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대가가 여성의 자식이 다치는 이러한 벌을 내리는 모습을 보면 며느리인 여성들에게 제사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야 하는 당위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¹¹⁾

따라서 제사 설화에서 정성을 강조하는 것은 제사 음식을 장만하고 준비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부여함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설화를 구연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제사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는 이야기를 구연하는 것을 보면 여성들에게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중요

11) 이 설화는 “자칫하면 네 꿏줄인 네 아들이 즉, 나의 손자가 다칠지도 모르니 제사 음식을 마련할 때에는 정성을 다하도록 하라!”라는 공포에 가까운 협박과 설득을 통해서, 제사 지내기에 대한 며느리의 진정한 동참과 협조를 구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자식이라는 끈을 통해서 여성들도 시집 가문의 꿏줄에 연결된다는 사실을 부각 시키면서 시집 가문의 제사 지내기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이인경, 「설화전승자의 의식 변화와 ‘祭祀說話’의 미래」, 『어문론총』 제52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0, 89쪽.)

한 일이면서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아무리 제사 음식을 정성껏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이 아닌 우연하게 발생하는 문제도 모두 여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여성들은 그러한 부당함을 참아야 하는 것이다. 결국 제사를 정성껏 지낸다는 것은 여성들에게 특별히 신경 써서 음식을 장만해야 하는 힘든 노동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사 설화에 나타나는 정성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유형 설화를 보면 여성이 아닌 남성들에게도 제사를 정성껏 지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구연하고 있다. 하지만 남성들에게 정성을 기울이기를 당부하는 설화는 1~2편 밖에 없다. 이를 제외한 제사 설화에서 정성을 들이는 이야기를 보면 대부분 여성에게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 유형 설화는 겉으로 보면 제사를 지내는데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교훈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사를 지내는데 가장 많은 정성을 들여야 하는 대상은 며느리인 여성이며, 이러한 여성들은 제사 준비를 위한 책임감과 과도한 부담감을 안고 지내야 했던 것이다. 자신이 초래하지 않은 부당한 일까지 책임져야 하면서 힘들게 준비를 해야 했던 여성들에게 제사에 정성을 들이는 것은 노동과도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지금에 와서 제사를 왜 지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는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 전승되어 왔던 제사 설화에서 정성이라는 문제는 여성에게 한정되어 구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전승되는 제사 설화는 어떠한 모습으로 구연되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Ⅲ. 전승의식 변화와 가족공동체의 문화적 의미

앞서 제사 설화의 전승 양상을 살펴보면서 제사를 준비하면서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책임감과 부담감을 주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현재 전승되고 있는 제사 설화는 어떠한 이야기로 전승되고 있는지 설화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2009~2018년까지 조사된 『(증보) 한국구비문학대계』 설화 중에서 ‘제사 차린 정성’에 대한 설화를 중심으로 변화된 전승 의식을 찾아보고자 한다. 여전히 제사 설화는 구비 전승되고 있으며 최근 전승되는 설화 중에는 예전에 조사된 설화 내용과 동일한 제사 설화들도 많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오늘날 전승되는 제사 설화 중에서 현대인들이 인식하는 제사 설화의 모습이 잘 드러내는 설화 10편을 중심으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전과 많이 변화된 지금 시대에 제사 설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30년 전에 전승된 제사 설화와 비교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최근에 조사된 『(증보)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제사 설화 중에서 앞서 살펴본 제사 설화와 동일한 내용으로 전승되는 설화를 제외하고 변화된 현대적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설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 전승되는 제사 설화의 목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설화 제목	채록 지역	제보자 성별	조사 연도
1	개가해서 전남편 제사 지낸 여인	강원도 홍천	남	2010년
2	개고기로 제사 지낸 둘째 아들	충남 예산	여	2013년
3	배고픈 귀신이 제사상 받은 사연	경남 창녕	여	2015년
4	시간을 지켜야 하는 제사	충남 태안	남	2011년
5	정성으로 제사 지내고 부자 된 딸	경북 문경	여	2010년
6	제사 잘 못 지내 벌 받은 집	경북 청송	여	2009년
7	제사 잘 못 지내 혼난 자손	경남 함안	여	2016년
8	제사는 제수보다 정성	경기도 성남	여	2016년
9	제사에 찾아오는 영혼	경기 동두천	여	2017년
10	화복하지 못한 제사의 후환	대전시 유성	여	2016년

지금도 제사와 관련된 설화는 계속해서 전승되고 있다. 현재 전승되는 설화들을 보면 30년 전에 채록된 제사 정성이 부족해서 꾸짖는 이야기가 여전히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설화를 구연하는 구연자들은 제사를 지내는데 정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현재에 와서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제사 음식을 장만하고 준비하는데 깨끗하고 정갈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과거에 전승된 제사 설화에서는 ‘정성’을 다해야 하는 대상이 며느리인 여성이며, 제사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지 않았을 때 며느리의 자식인 손자에게 해를 끼치는 조상 혼령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사 음식을 제대로 장만하지 못하였을 때 자신의 자식에게 나쁜 일이 생긴다고 할 만큼 제사 음식 준비에 대한 여성들의 책임감과 부담감을 크게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며느리인 여성이 제사를 정성껏 준비하도록 강조했던 제사 설화는 오늘날 어떻게 변화되어 전승되고 있을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 제시된 현재 전승되는 제사 설화는 각 편마다 다양한 이야기를 구연하고 있다. 현재 전승되는 제사 설화의 내용을 보면, 제사에서 금기시되는 개고기를 제사 음식으로 올린다거나 둘째 아들이 제사를 지내는 이야기, 조상들이 평소에 좋아했던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 하고 있다. 이전 시대에 제사를 지내면서 엄격하게 지키도록 요구했던 사항들이 현대에 와서 융통성 있게 허용되는 모습으로 바뀌어 나타나고 있다.

이웃집에서 부르더래유. 개고기 있잖유. 탕신네 읍고허니께 못 먹을거 같아서 갖고 갔다고 막 이만침 갖고 왔드래유. 먹으라고. 우리가 먹는데 지금 먹지 말고서. 그냥 놓고 지사지내는 식으로 놔두고서 그냥 자고. 그래서 잤어유. 어머니 아버지 왔더래유. 꿈에.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선 아침에 일어났는디. 동네 사람이 불러더래유. 그래 왜 그러냐고 그러니께. "자네는 모 쌀이 없어서 굶는다고 허드라고. 그러니께 이따가 와서 우리집와 쌀 한가마 지고 가라고" 그렇게갔고 사방에서 와서 주드래유.¹²⁾

위의 설화에서는 가난한 둘째 아들이 제삿날 제물을 장만하지 못해 큰아들 집에 가지 못한다. 그런데 우연히 받은 개고기를 직접 먹지 않고 제사 음식으로 올리고자 한다. 둘째 아들은 큰아들 집에 가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소박하게 제사를 지내고자 한다. 제사 음식이라고 해도 아주 단촐하고 소박하게 차려진 상차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제사 음식에 금기시되고 있는 개고기를 제사 음식에 올리려고 한다. 둘째 아들이 차리는 상차림의 모습은 제사 규범과 의례에 어긋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사에서 금기시되는 음식인 개고기로 아주 소박하게 음식을 차려 제사를 지낸 둘째 아들은 오히려 복을 받게 된다. 자신의 부모가 이웃집 사람들 꿈에 나타나서 먹을 양식을 주라고 했다는 것을 보면 둘째 아들이 차려준 제사상을 부모들이 흔쾌히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2013년에 전승되고 있는 제사 설화를 보면 제사 음식에 대한 규범보다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을 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현대로 올수록 제사 규범과 의례의 다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사는 큰아들인 장남 위주로 의례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위의 설화에서는 부유하게 살고 있는 큰아들보다 둘째 아들의 제사상을 부모들이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 혈연 가족 중에 제사를 주재해야 하는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제사의 규범이 예전보다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현대에 오면서 제사에 대한 인식은 다변화되고 자율화되고 있다.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제사 음식의 변화는 제사의 모습이 다양하게 변화해 가는 다변화의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둘째 아들이 제사를 지내거나 제사 지내는 시간을 제사 참석자들에게 맞추어 조율하는 것 역시 제사 의례의 시간과 공간을 한정해 두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해서 의례를 지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의 10편의 설화 중에서 6, 10번에 해당하는 2편의 설화에

12) <개고기로 제사 지낸 둘째 아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충청남도 예산)』, 한국학 중앙연구원.

서는 제사에 정성을 들이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구연하고 있는데 2편의 설화에서 제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 제사나 뭐나 지내도 군소리하지 말아야 돼요. 제사도 그래 한번 지내니까 네, 이눔에 제사를 지내는데 뭐 참 온갖 지랄을 다 하고 뭐 온갖 조선 욱 다하매 제사를 지내거든. ‘귀신이 죽어뿌면 귀신이 뭘 아노?’ 하지만 안 그렇데이.¹³⁾

위의 설화는 제사를 지낼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설화의 내용을 보면 제사를 지낼 때 군소리하거나 투정 부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위의 설화의 경우 제사를 지내면서 부부가 싸우는 장면이다. 아내가 제사 음식을 준비하면서 힘들다거나 짜증스러움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다. 제사 음식을 준비하면서 아내가 투덜대면서 욱을 하는 모습을 통해 며느리인 여성이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앞서 2장에서 다룬 제사 설화의 경우 며느리인 여성은 제사 음식 준비가 힘들어도 불만을 토로하거나 짜증을 내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전승되는 설화에서는 여성들이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힘들게 생각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제사 음식을 힘들게 준비하는 것이 부부의 갈등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제사 음식을 장만하는 것이 여성들에게 여전히 노동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전의 제사 설화에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현재 전승되는 설화에서 며느리의 여성은 제사 음식 준비에 대한 불만을 남편에게 표출하고 있다.

제사는 집안 어른들이 모여서 함께 지내는 의례이다. 하지만 핵가족화가 되고 생활 환경이 바뀌면서 예전처럼 모든 가족이 모여서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가족 형태의 변화는 주로 장남인 아들이 제사를 지내도록 하여 가까운 친척들끼리 모여서 간소하게 제사를 지내게

13) <제사 잘 못 지내 벌 받은 집>,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경상북도 청송)』, 한국학중앙연구원.

되었다. 그러다 보니 간소화된 제사 의례는 장남인 아들과 부인에게 책임이 가중되었고 장남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제사 참석의 의무를 지니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남의 부인인 여성은 간소화된 제사이지만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 특히 요즘에는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든 여성들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맡아 주재하는 쪽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장남의 부인인 여성은 남편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그 책임과 부담감을 함께 지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책임과 부담감을 가진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다. 제사를 없애는 것도 제사 절차를 바꾸는 것도 남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불평불만을 할 수 있는 것이다.¹⁴⁾ 하지만 남편의 경우 제사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은 있지만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책임지고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남편의 부인 역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준비하고 책임져야 하며, 제사를 지내야 하는 불만과 짜증을 고스란히 남편에게 하는 것이다. 가족의 형태가 변화되어 제사가 점점 간소화될수록 제사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책임감과 부담감은 커지게 된다.

이렇게 보면 현재는 제사를 준비하는 여성을 만머느리로 한정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설화처럼 장자가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하거나, 제사를 준비할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되는 자녀가 제사를 지내게 되면서 제사는 만이 또는 만머느리에 한정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사 문화의 변화는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자녀가 다른 자녀들보다 느끼는 책임과 부담감은 커졌다. 제사 지낼 형편은 되지만 생활문화가 바뀌면서 바쁜 일상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에게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쉬

14) 대가족제도에서는 남성을 중심으로 한 분명한 서열 관계가 마련되고 이에 복종해야 하지만, 부부 중심의 핵가족에서는 남녀가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보장받기 때문에, 제사란 대가족제도의 산물인데 제사를 지내야 하는 사람들은 핵가족의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의 남녀구성원 사이의 의견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이인경, 「설화진승자의 의식 변화와 ‘祭祀說話’의 미래」, 『어문론총』 제52호, 한국문화언어학회, 2010, 90쪽 참조.)

운 일이 아니다. 특히 현대의 여성들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사를 준비해야 하는 갈등은 예전과 다른 힘든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여성들의 제사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 이전의 제사 설화에서 여성은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의 힘들과 정성껏 준비해도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 와서 여성들은 제사 음식을 준비하지만 제사를 왜 지내야 하는가와 왜 내가 지내야 하는가에 대한 불만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은 결국 남편을 통해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¹⁵⁾

그래서 지금 시대에 전승되는 제사 설화에서 여성들이 남편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제사를 정성껏 지내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로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 전승되는 제사 설화와 비교해 보면 예전에는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의 힘들과 까다로운 절차와 과정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고부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제사 설화를 구연하는 구연자들이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구연하면서 며느리에게 정성을 기울이기를 강조하는 교훈적인 설화를 구연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전승되는 제사 설화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제사에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구연하는 설화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 오늘날 제사 설화에서는 제사를 왜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 부부가 갈등하는 모습의 설화를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 제사 설화의 전승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중심이 되어 제사를 준비하면서 힘들음

15) 최근 젊은 세대에게 제사 설화를 접하게 하였을 때, 며느리인 여성이 제사 음식을 마련하는 수고를 오롯이 여성들이 감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에 따른 감사와 칭송은 시아버지와 같은 남성들이 받게 되는 부조리함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노력과 보상’에 따른 분배구조가 왜곡되었음을 문제 제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로 형성된 핵가족의 평등한 구조 속에서 오늘날 노력과 보상의 문제는 여성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이인경, 『祭祀說話』에 대한 신세대의 해석과 구비전승의 方向, 『국문학연구』 제21호, 국문학회, 2010, 184쪽 참조.)

토로했던 관점에서 부부 갈등의 관점으로 변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제사를 간소화하면서 맏이가 아닌 자녀가 제사를 지내거나, 경제적 형편이 되는 자녀, 그리고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자녀가 제사를 지내게 되면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제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 시간적 여건이 가능한 자녀만 제사에 참석하는 상황과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녀 중심으로 제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사를 준비하는 여성의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과 비교해 볼 때 제사를 왜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제사 설화를 통해 제사가 부부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 전승되는 제사 설화에서 정성을 기울이지 못하는 이유는 제사 음식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다. 제사가 간소화되면서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여성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조상을 위해 왜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물음은 가족의 규범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제사를 주재하는 부부의 갈등은 서로가 인정하는 가족의 범위의 차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부의 갈등은 오늘날 가족의 범위와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재정립 해야 함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사를 왜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은 여성들만의 문제 제기가 아니다. 제사를 주재하는 부모의 자녀와 같은 젊은 세대들 역시 제사를 왜 지내야 하는가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현재 전승되는 제사 설화에서는 세대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바쁘게 살아가는 생활 환경의 변화로 제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현재 전승되는 제사 설화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옛날에 우리 바깥 양반이 외국을 가서 1년 있었어. 내가 인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지사가 닥친 거야. 우리 미션이는 학교 다닐 때고. 둘이 인저, 그냥 나 심

부름을 해 주고, 지사를 차려서. 운이네 서방님하고 선덕네 서방님 하고 허병네 서방님하고 세 양반은 꼭 와. 근데 안 오는 거여. 어머! 잊어 버렸다. 그냥 이렇게 바쁜 때니까 지사들도 못 지내러 오시니까 둘이 인저.. 딸 꺾그만한 것하고.¹⁶⁾

위의 설화에서 제사는 보통 남성들이 중심이 되어 지내게 되어 있지만, 요즘같이 바쁜 일상생활에서 남성들이 제사 때에 맞추어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 남성들이 제삿날을 기억하지 못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다. 제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제사를 준비하는 여성들이 잘 기억하게 마련이다. 바쁜 생활로 남성들이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면 제사를 준비한 여성이 제사를 지내게 된다. 제사를 지내는 것도 꼭 남성이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여성들이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하는 설화는 오늘날 제사를 지내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대신해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적인 일로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제사 날짜를 까먹는 남성들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설화를 보면 현재의 젊은 남성들은 점점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유형 설화의 결말을 보면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면서도 못마땅해하는 구연자들의 한탄으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을 보아 쉽게 파악할 수 있다.¹⁷⁾ 이러한 결말은 이전의 제사 설화에서 제사에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손주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개인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젊은 세대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재 전승되는 제사 설화에서 제사를 잘

16) <정성으로 제사 지내고 부자 된 딸>,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경상북도 문경)』, 한국학중앙연구원.

17) 조상의 힘에 대한 경험은 부정적인 힘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제사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삶의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현대로 올수록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 믿지 않는 젊은 세대들이 많다는 점에서 설화의 결말에서 자손에게 벌을 내리는 내용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육, 「제사의 종교적 의미에 대한 고찰」, 『유교사상연구』 제16집, 한국유교학회, 2002, 96쪽.)

지내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예전에는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혈연인 손자를 통해서 깨우쳐 주면서 강력한 혈통 관계를 강조했다면, 현재 전승되는 설화에서는 제사를 잘 지내면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다는 좀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제사의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현대인들에게 삶의 가치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제사를 정성껏 지내면 받는 복록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여성들이 채워가고 있다. 남성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제사에 여성들이 음식을 준비하여 주도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면 장자 또는 남성 중심적이었던 제사가 이제는 남성들은 관심이 없어지고 여성들이 제사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여성의 노동은 시대가 변하면서 엄격하게 정성을 강요해 왔던 행동들은 완화되고, 여성들이 대신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의 절차 등도 엄격함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오히려 제사의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남성들의 제사에 대한 관심이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남성들의 모습은 기존 세대와 갈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제사가 혈연 중심의 연대를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제사를 혈연주의에 너무 얽매어서 인식해서는 오랫동안 제사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현재 전승되는 제사 설화를 보면 시대에 따라 변화된 모습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이전 시대에 제사 음식 장만과 준비로 힘든 노동을 해야 했던 여성들은 부부와의 갈등을 통해서 여성들의 과도한 노동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결국 우리가 서로 소통해서 바꾸어 나가야 하는 제사 문화인 것이다. 나아가 장자가 제사를 맡아서 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꾸어 형편이 되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고, 금기시되는 제사 음식에 대한 규범을 융통성 있게 바꾸려는 노력도 설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제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제사를 지내지만 제사의 격식과 절차는 지금의 상황에 맞게 바뀌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제사 설화가 오늘날 문제가 되는 점이 있다. 제사 설화를 구연하는 구연자들이 정성을 들이지 못한다고 여기는 부분은 현재의 젊은 세대들이 말하는 제사 설화에 대한 인식들이다. 여성들의 과한 노동, 제사 격식에 대한 엄격함, 바쁜 생활 환경으로 인하여 제사 불참석 등은 제사 설화를 구연하는 구연자들에게 정성을 들이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러한 점이 기존의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며, 현재 제사를 지내기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화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제사 문화 또는 제례 문화가 오늘날 여전히 유효한 가치를 지니는 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제례라는 것은 가문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문화를 구성하는 가장 강력한 의례이며, 전통의 계승과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으며, 제례의 유연한 운용방식은 새로운 가족공동체를 구상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¹⁸⁾ 이러한 제사 또는 제례 문화의 계승과 변화에 주목하면서 한국 가족문화의 변화 지점을 읽어내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기존 세대와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성’이라는 보편적인 인식에 얽매어 제사를 지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제사를 더욱 필요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 제사를 바라보는 입장이 다소 양극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조상과 부모를 기억하는 의례인 제사 문화는 긍정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문화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사 문화가 오늘날 왜 불필요하게 여겨지는지를 기존 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사 설화가 부계 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의례라는 점에서 세대 간의 갈등에 주목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세대 간의 갈등의 실마리를 풀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제사 설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8) 정우락, 「경북 중가 제례의 양상과 문화적 의미」, 『온지논총』 56집, 온지학회, 2015, 287~289쪽.

IV. 결론

지금까지 기존에 전승되던 제사 설화와 현재 전승되는 제사 설화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구비 설화에서 제사 설화는 제사의 절차나 규범을 이야기하지 않고 제사의 정성에 중점을 두어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성이라는 주관적인 용어의 의미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에 전승되던 정성이라는 의미는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부여되는 책임감과 부담감이었지만, 현재에 와서 정성이라는 것은 제사를 왜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부부가 정성을 들여 제사를 지내는 것이며, 아무리 생활이 바빠도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정성을 다하는 것으로 달라졌다. 이처럼 제사 설화는 그동안 혈연 중심의 연대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혈연 중심에서 벗어나 기존 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상과 부모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찾는 데 제사 설화가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2022년 1월 3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2월 10일부터 3월 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3월 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증보)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12~2018.
- 김미영, 「설화를 통해 본 조상제사의 인식 체계」, 『한국계보연구』 4권, 한국계보연구회, 2013.
- 이 옥, 「제사의 종교적 의미에 대한 고찰」, 『유교사상연구』 제16집, 한국유교학회, 2002.
- 이인경, 「‘제사설화’에 대한 신세대의 해석과 구비전승의 향방」, 『국문학연구』 제 21호, 국문학회, 2010.
- 이인경, 「설화전승자의 의식 변화와 ‘祭祀說話’의 미래」, 『어문론총』 제52호, 한국 문학언어학회, 2010.
- 임재해, 「설화문화학적 관점에서 본 제사문화와 제례의 민중적 인식」, 『민속연구』 제9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9.
- 정우락, 「경북 종가 제례의 양상과 문화적 의미」, 『온지논총』 56집, 온지학회, 2015.
- 정재민, 「〈부정한 제사음식〉 설화의 변이와 그 의미」, 『구비문학연구』 10집, 한국 구비문학회, 2002.

A Study of oral transmission of the folktales related to ancestor memorial rites and cultural meaning of the family community

Ryu, Myeong-ok

The legend of the rite is passed down around the ritual for ancestors. One type of ritual tale that is handed down is ‘a story that the spirit causes due to lack of sincerity.’ The folktale of the rite, which is handed down in the oral tale, tells little about the formalities of the rite, and mostly about the sincerity or mindset of the rite.

The meaning of devotion, which is regarded as important in the folklore of ancestral rites, is mainly to require the preparation of food for ancestral rites. Anyone can agree that they should pay close attention when holding a memorial service. However, behind the preceptual theme of preparation of sacrificial food with due care is limited to women who are daughters-in-law. For women who had to pay close attention, the ritual of sacrificial rites had an excessive sense of responsibility and burden, and the meaning of devotion had to be rigid. In the folktale of the rite, sincerity is taken as the meaning of labor by women.

However, the tales of ancestral rites are still handed down today, and some are handed down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changing times. According to the folktale of the current rite, women's perception of the meaning of labor continues. However, problems that were limited to women appear to change in two directions. First of all,

women raised the issue of the need for ancestral rites, leading to marital conflict, which changed their view from women to marital problems.

And the folktale of the rite changes into a conflict between generations. The folktales criticizes men who are unable to participate in the ritual due to their busy lives or forget the date of the rite. Men increasingly don't value ancestral rites and women fill their vacancies. Women prepare food for ancestral rites that men cannot participate in and take the initiative in holding rituals. The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 of ancestral rites, which were either the eldest or male-centered, weakened and the role of women expanded. As the view of generational conflict changes, men become less interested, and women perform ancestral rites with previous responsibilities.

In this era of weakening intergenerational ties, the tales of ancestral rites seem unlikely to be handed down anymore, but they are still changing in line with the changing times. It is meaningful in that it shows how the culture of paternal ancestral rites is changing in the present, and it is meaningful in that it shows how the center of modern families are changing.

keywords :

family community, folktale, generational conflict, Daughter-in-law, folktales related to ancestor memorial rites, Ancestor, sincerity

